

가장 좋은 찬양

[성경본문] 빌립보서 1:9-11

본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다. 그는 몇 가지 내용을 기도하였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였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였다. 셋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했다. 넷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였다. 다섯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였다. 사랑, 선함, 진실, 의--이 네가지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수적인 덕목이며 성화의 목표이다.

본문의 다섯 가지 기도 내용들 중 두 번째의 기도 내용, 즉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기를 기도한 것은 특히 오늘날 찬양 문제에도 적용해야 할 내용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범사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하며 선한 것을 택하고 악한 것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며 선하고 좋은 것을 택하고 악하고 나쁜 것을 버려야 한다. 이것은 찬송의 문제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장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좋은 찬양인가?

1. 가장 좋은 가사로 하는 찬양

첫째로, 가장 좋은 찬양은 가장 좋은 가사로 하는 찬양이라고 본다. 찬양은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들을 높이는 노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나 노래는 그 곡보다 그 가사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아름다운 곡이라 할지라도 그 가사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찬송이나 성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찬송과 찬양의 성경적 가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주 되심을 찬송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4:10-11에 보면, 이십사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말했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그리고 성령의 중생시키시는 사역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해야 한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救贖)하시고 중생시키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은 그 때문이다.

에베소서 1:3-14의 구절을 보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또한 그것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즉 그의 공훈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해야 한다. 찬송하되 특히 그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해야 한다. 그러므로 찬송 중에 가장 귀한 찬송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노래한 가사의 찬송, 즉 속죄의 찬송이다.

요한계시록 5:8-10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광경에서 네 생물들과 이십사 장로들은 어린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새 노래를 노래하여 말하기를,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하였다. 그들의 찬송 가사는 예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는 것, 즉 구속(救贖)하셨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찬송하는 가사의 노래로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찬송과 찬양의 가사

는 성경적이어야 한다.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가사를 잘 전달해야 할 것이다. 가사가 전달되지 않는 찬양은 찬양이 되기에 부족하다. 그것이 아름다운 곡일지라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독창이나 중창이나 합창을 하는 자들은 가사를 듣는 자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많이 연습해야 할 것이다. 또 가능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내용의 가사로 된 찬송과 찬양을 하는 것이 좋다. 회중이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의 가사는 듣는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기 어렵다.

2.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하는 찬양

둘째로, 가장 좋은 찬양은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하는 찬양이다. 시편 96:9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말하였다. 예배와 찬양은 경건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은 노래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그 음악에 도취하거나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참된 찬양은 찬양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좋으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 좋으라고 그의 귀에 대고 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행하는 록 형식의 모든 음악들은 그리스도인의 노래로서 또 교회 음악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의 특징은 비트인데 비트가 있는 노래들은 노래 부르는 자들이나 듣는 자들의 흥을 돋우고 그들이 그 노래에 도취되거나 그 노래로 자기 만족을 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노래로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는 보다 인격적이고 안정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찬송과 찬양은 가장 아름답고 경건하게 드러져야 한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음악의 아름다움은 조화와 질서에 있다. 무질서하고 조화 없는 음의 결합은 아름답지 못하다. 찬양은 소리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작은 소리라도 조화롭고 아름답게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회중들의 찬송이나 피아노나 오르간 연주도 너무 볼륨을 크게 하거나 터치를 세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 피아노 터치나 오르간 볼륨을 적절하게 하고 오히려 작더라도 조화롭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연습해야 할 것이다.

3. 마음으로 하는 찬양

셋째로, 가장 좋은 찬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부르는 찬양이다. 에베소서 5:19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즉 마음 없이 부르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다. 찬송과 찬양은 아름다운 목소리나 음악적 기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성경 진리를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다. 또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한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찬송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람의 입술의 찬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시다. 그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는 진심의 찬양을 원하신다.

가장 좋은 찬양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좋은 가사와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찬양하되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찬양이다. 우리는 가장 좋은 찬양을 부르는 자가 되자. 오늘날 세속음악의 영향을 받은 자기도취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노래들은 찬송이 아니다. 찬송은 보다 경건하고 안정되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